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인 사 말 씀

2021. 2. 17.

금 융 위 원 회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①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②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③디지털 금융혁신 및 ④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방향 하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소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원+@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1년 중에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요소를 고려하여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금융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셔서 4.6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21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